



미 증시, 부채한도 협상 추가회동 주시하며 소폭 상승

미국 증시 리뷰

15 일(월) 미국 증시는 뉴욕 제조업지수 쇼크, 매파적인 연준위원들 발언에 하락 출발했으나, 부채한도 협상 관련 추가 회동 소식, 반도체주 강세 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 (다우 +0.14%, S&P500 +0.3%, 나스닥 +0.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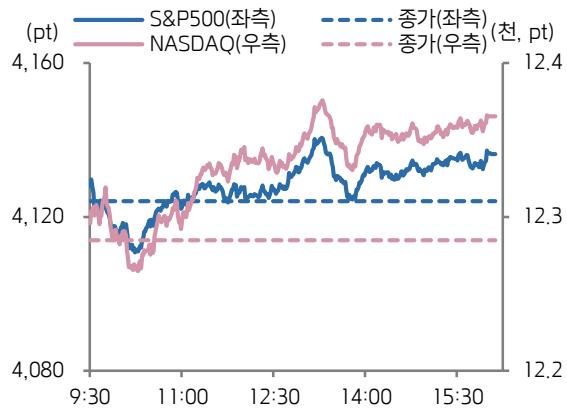
5 월 뉴욕 제조업 지수는 -31.8(예상 -3.9, 전월 10.8) 기록하며 예상치 크게 하회, 2020년 4 월 이후 가장 큰폭으로 하락. 신규주문은 4 월 46.7 에서 -28, 출하량 37.3 에서 -16.4 로 급락한 것에 기인. 뉴욕 연은은 “신규 주문과 선적이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고용과 근로시간 모두 4 개월 연속 소폭 하락했다”며 “기업들은 앞으로 6 개월 동안 상황이 거의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언급.

이날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해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은 “여전히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언급.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전일 “우리는 물론 저쪽도 합의하고자 하는 바람이 정말로 있다고 생각한다”고 낙관적인 태도를 보임. 바이든 대통령이 주중에 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고, 상·하원도 메모리얼 데이(29 일) 전후로 휴회하기 때문에 16 일 회동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디플트 우려는 고조될 것이라는 분석 제기.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이날 “인플레이션이 매우 빠르게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며 2024년까지 금리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 경기에 대해서는 “미국 가계에 큰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 “만약 우리가 침체에 빠진다면 길거나 깊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 경기침체가 있더라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 매파 인사인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겁고 이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데 갈 길이 멀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언급, “연준이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은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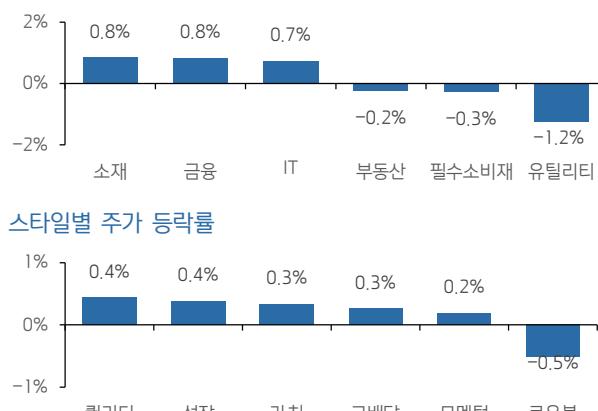
업종별로 소재(+0.8%), 금융(+0.8%), IT(+0.7%) 업종 강세, 유ти리티(-1.2%), 필수소비재(-0.3%), 부동산(-0.2%) 업종은 약세. 일본 키옥시아와 웨스턴디지털의 인수합병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 재고 누적과 가격 하락으로 향후 반도체 기업들의 합병이 가속화될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며 엔비디아(2.16%), 마이크론(6.11%), AMD(2.25%), AMAT(4.32%) 반도체 관련주 강세.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479.35	+0.16%	USD/KRW	1,336.71	+0.18%
코스피 200	324.46	+0.26%	달러 지수	102.43	-0.24%
코스닥	814.53	-0.96%	EUR/USD	1.09	+0.01%
코스닥 150	1,218.98	-0.81%	USD/CNH	6.96	+0.03%
S&P500	4,136.28	+0.3%	USD/JPY	136.05	-0.05%
NASDAQ	12,365.21	+0.66%	채권시장		
다우	33,348.60	+0.14%	국고채 3년	3.275	+4.5bp
VIX	17.12	+0.53%	국고채 10년	3.334	+5.2bp
러셀 2000	1,761.55	+1.19%	미국 국채 2년	4.010	+2.3bp
필라. 반도체	3,052.64	+2.68%	미국 국채 10년	3.502	+3.9bp
다우 운송	13,846.45	+0.46%	미국 국채 30년	3.842	+5.3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316.41	-0.03%	WTI	71.11	+1.53%
MSCI 전세계 지수	651.63	+0.37%	브렌트유	75.23	+1.43%
MSCI DM 지수	2,819.47	+0.36%	금	2022.7	+0.14%
MSCI EM 지수	977.48	+0.46%	은	24.13	+0.56%
MSCI 한국 ETF	60.22	+1.6%	구리	373.75	+0.5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6%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1.84%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49%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33.2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미국 증시 반등에 따른 국내 투자심리 개선 가능성
2. 장중 발표 예정인 소매판매, 산업생산 등 중국 실물경제지표 결과
3. 마이크론 등 필라델피아 반도체주 급등이 국내 반도체주에 미치는 영향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전일 미국 증시가 반등하긴 했으나, 5 월 이후 미국, 한국 등 주요국 증시가 정체된 주가흐름을 보이고 있는 배경은 주식시장과 여타 자산시장 간에 부채한도 협상, 경기 침체 등 특정 사안을 둘러싼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

현재 바이든 정부와 미 의회에서 예산 지출을 놓고 부채한도 협상이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6 일(현지시간)에 재차 회동하기로 알려진 상황. 이날 합의가 되지 못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17 일 G7 정상회담 참가, 29 일 메모리얼 데이 전후 의회 휴회 등으로 6 월 초까지도 협상이 지연되면서 5 월말로 갈수록 정치 불확실성이 증폭될 여지가 있어 보임.

또 15 일 기준 미국의 경기 서프라이즈지수(경제지표가 컨센트를 상회하면 "+" 영역, 하회하면 "-" 영역)는 -2.9pt로 3 월 중 +60pt를 넘었던 시기에 비해 경기 기대가 크게 악화된 상황 속에서, 상기 정치 불확실성이 경기에 추가 하방 압력을 안겨 줄 수도 있음.

하지만 이 같은 정치 문제를 놓고 주식시장은 낙관하고 있는 반면, 채권이나 크레딧 시장은 비관적인 반응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 가령, 주식시장 변동성 지표인 VIX 는 15 일 기준 17.1pt로 연저점(15.8pt)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안정적이나, 채권시장 변동성 지표인 MOVE 는 27.9pt로 연저점(97.3pt)에 비해 높게 형성된 모습. 미국 정부의 부도 위험을 가능하는 1 년물 CDS 프리미엄도 164bp로 연초 14bp에 비해 약 1,000% 가량 폭등하는 등 연준의 긴축과 맞물려 채권과 크레딧 시장의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못하고 있는 양상.

이처럼 자산시장 간 탈동조화 발생이 증시 상단을 제약하는 압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다만, 부채한도 증액의 과거 사례를 살펴봤을 때, "부채한도 협상 실패 → 정부 디폴트"와 같은 극단적 시나리오의 현실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재정 부족으로 인한 연방 정부 셧다운이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겠으나(1980 년대 이후 셧다운 사례 13 회, 셧다운 기간 S&P500 평균 주가 등락률 -0.2%), 증시 하단 역시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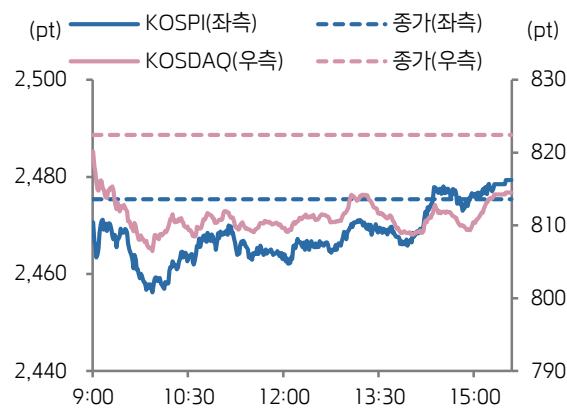
전일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미국 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등 대외 악재 속 2 차전지 주를 중심으로한 매도 물량 출회로 장 초반 큰 폭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후 대형주를 중심으로한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에 힘입어 전약후강의 장세로 마감(코스피 +0.2%, 코스닥 -1.0%).

금일에는 국내 2 차전지주들의 주가 및 수급 변동성 지속 예상에도, 미국 증시 반등, 장중 발표 예정인 중국 실물 경제 지표 등을 소화하며 강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종목간 차별화 장세를 유발했던 실적시즌이 종료되긴 했지만, 금일 업종 관점에서는 반도체주에 주목할 필요. 4 월 중순 이후 삼성전자 등 국내 주력 반도체주들의 주가가 박스권에 갇힌 가운데, 최근 업황 회복 지연 우려가 점증하면서 이들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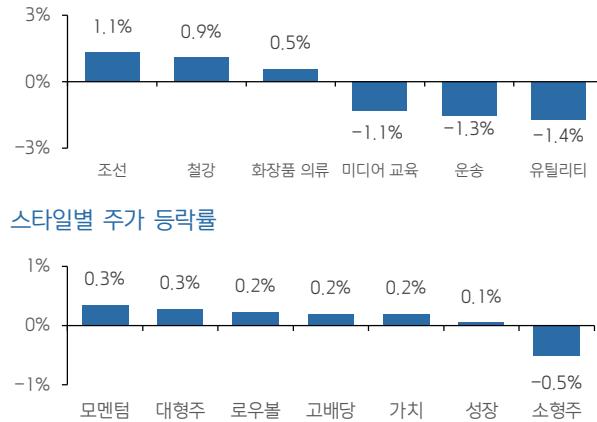
그러나 전일 미국 증시에서 웨스턴디지털(+11.3%)의 키옥시아 합병 소식에 따른 주가 급등, 마이크론(+6.1%)의 AI 수요 호조 발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로 인한 주가 급등 포함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2.7%)가 강세를 보였다는 점은 국내 반도체주들의 투자심리를 호전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기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짰게 됩니다.